제2차 공개강좌

고통 해탈문

- 일 시 : 2016년 8월 31일(수) 오후 3시 무료예약(33명 제한)
- 문 의 : 1899-9532
- 강 사 : 깨달음센터 - 방장 진귀



● 진귀(眞歸)는 어떤 수행자 인지 ?

1, 진귀는 불가사의한 수행자로서 대다수 범부들의 안목으로는 진귀수행자의 가치와 수행경계를 가늠하기가 불가능하며 더우기 이 세상의 분별잣대 로는 믿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수행자이다.

2, 겉모습이나 명색의 분별심으로는 측량하기가 어렵겠지만, 한국의 대다수 수행자들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행자들조차 암, 중풍 등등 병통으로 고통에 시달리다 입적하고 있는 현실앞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랫동안 은현자재한 진귀수행자는 세상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냉대함은 당연 하겠지만 혹, 눈 밝은 자의 선근으로 인연되어 어떠한 방편을 일체 쓰지않고 오로지 차 한 잔 같이 마시는 법력만으로도 이러한 고통들을 사라지게 하고 물러나게 함을 시현하고 입증시키는 수행자이다.

3, 붓다의 법음은 고통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자비스런 메시지가 한국에 전래된지 약 1700년이 흘렀음에도 2016년 UN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행복순위가 57위에 머물러 있고,또한 삶의 질(웰빙지수)에서는 세계 100위권이고 또한 자살율이 OECD 국가중 최고라는 어두운 뉴스가 수행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이러한 불행속의 한국에서 <자칭 깨친사람은 많으나 깨어있는 참된 사람은 없다>라는 비난 섞인 소리가 저자거리에 난무하듯이, 상(相)을 여읜 자유스런 물결이 세상사람들의 안목과 의식을 깨어나게 함을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들과 외도들의 득세와 또한, 업에 구속되고 고정화된 식견(識見)과 지견(知見)을 바로잡는 나침반이 되는 희망과 원력으로,지금 보다 행복하고 평온한 한국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큰 서원을 담아서, 2017년 출판을 목표로 <삼세를 통한 역경작업>에 전념중이다.

4. 진귀 수행자는 <석가를 품은 53見>이라는 화두집의 저자로서 말법시대의 세상사람들이 자신들의 전도몽상적 안목을 돌이켜 보게하고 한 번쯤은 자신의 본래면목을 사유 하게하는 줄탁의 인연이 되고자 집필 21일만에 탈고하여 출판은 했지만 쉽게 인연지어 볼수 없는 불가사의 공덕장엄이 있는 화두집 이다.

5, 2016년 여름 현재, 진귀수행자는 법회, 기도, 신도단련, 천도재 및 각종수련 등등을 일체 하지 않는 수행자로서, 오직 화엄경 연구와 역경작업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강좌 외의 법문요청, 강의요청 및 친견요청 과 취재요청 등등을 일체 사절중에 있으며, 혹 간절하고 간절한 친견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소속 사찰에서 만배(10,000배)를 5일 이내에 마친후 확인증을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친견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센터
(구. 화엄경 강원)
주지 원일 합장